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논쟁, 누구 말이 맞을까



김승호의
시선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KNK디지털타워에 위치한 웹케시 본사에서 새해 벽두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한 웹케시그룹 창업주 석창규 회장이 30여 명에 달하는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석 회장은 “저는 탐욕적인 기업인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는 지난해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합·발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올해부터 한국조폐공사가 맡게 됐다. 비즈플레이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일감을 뺏긴 셈이다.

석 회장은 “공공이 왜 민간 영역에 들어왔느냐. 본인(조폐공사) 기술도 없이 하도급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결제시스템(산업)에 무슨 발전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통합, 발행을 시

작하려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업자 인 조폐공사측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두 달이 늦춰졌다. 이 때문에 2월까지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모바일)와 KT(카드)가 업무를 떠안게 됐다. 그러면서 소진공과 조폐공사는 통합 오픈 시기를 3월 1일로 다시 잡았다.

석창규 회장은 ▲정상 오픈을 위한 필수 고지 기간 초과 ▲대용량 이관 사전 준비 및 방법론 부재 ▲플랫폼 필수 테스트 절대 부족 ▲운영사업자의 필수 과업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3월1일에 정상 오픈을 하지 못할 것이다.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오픈해서도 안된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자칫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석 회장은 그러면서 조폐공사가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자사에 요구했던 ‘플랫폼 설계도(ERD)’에 대해선 부당한 처사인 동시에 기술탈취 가능성을,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해선 불법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즉각 반박했다.

조폐공사는 “3월 1일 정상 오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상 오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운영사업자(비즈플레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며 비즈플레이측에 공을 돌렸다. ERD에 대해선 “요청해 받기는 했지만 현재 ERD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의 오프나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업 주체인 소진공도 3월 1일 통합 앱 출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 소진공은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불법)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놓고 기존 사업자인 민간기업 비즈플레이와 공공기관인 조폐공사, 소진공이 단단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3월1일)정상 오픈 불가시 모든 책임은 조폐공사가 져야 한다. 우리 지난해 수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 정상 오픈이 불가하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불가능’, ‘가능’으로 맞서고 있는 3월1일은 곧 온다. 그 때가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3일 (음 12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 48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전부터 죽 쑤다. 6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7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헤매다 가 소독은 없이 돌아선다. 84년생 처음이 중요하다 끝맺음도 잘 해야.



37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기다려라. 49년생 붉은색과 함께 숫자 6이 행운을 준다. 61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73년생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친구는 신의에서 시작. 85년생 배우자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38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50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 62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자. 74년생 간에 불났다. 쓸개에 불났다 하다 보면 갈 곳이 없다. 86년생 평온하니 한가하게 뱃놀이.



39년생 재능이 가득해도 올바른 처신이 구슬수를 예방한다. 51년생 배경을 과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63년생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날 때가 있다. 75년생 써지 않으려면 물은 계속 흘러 보내야 한다. 87년생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40년생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2년생 지금으로서는 임시방편 대충 할 수 있는 미봉책(彌縫策)이 필요. 64년생 오후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76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88년생 돈 문제가 갈수록 태산.



41년생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한다. 53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제가 높아진다. 65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지니 실망은 이르다. 77년생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89년생 조상님께 결초복은(結草報恩)의 마음이다.



42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5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6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많아진다. 78년생 이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결과를 낳는다. 90년생 걸 다르고 속 다른 것도 인생사.



4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5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67년생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다. 79년생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간. 91년생 그동안의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44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든 참여. 5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6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80년생 이기적인 마음을 포용으로 바꾸라. 92년생 조직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45년생 외출할 때 이론치를 조심. 57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69년생 빛나서 빛을 갠다. 81년생 불평 마라 절이 싫으면 종이 떼라. 93년생 굴벵이도 꾸르는 재주가 있으니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46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8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0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2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94년생 새로 만난 사람의 말은 그림의 떡.



47년생 상식이 많으니 주위에 사람도 많이 따른다. 59년생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71년생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형국이다. 83년생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95년생 험겨운 삶에 애정을 가져야 할 것.

유별난 명품사랑이 불러온 배짱 영업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유별나다. 과자나 라면이 몇 백원 오르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명품은 가격이 올라도 줄을 서서 구매하니 말이다. 명품업계가 국내에서 배짱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인의 명품 사랑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

에르메스, 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가 연초부터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부터 가방, 의류, 장신구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 가량 인상했다. 가방은 평균 10% 인상이 적용됐으며 슈퍼리의 경우 급값 상승 영향을

반영해 더 높은 인상이 적용됐다.

샤넬은 지난 9일 일부 플래툰 제품에 대해 평균 2.5% 가량 가격을 올렸다. 미디움 사이즈는 기존 900만원에서 931만원으로 약 1.4% 인상됐고, 라지 사이즈는 983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약 3.5% 올랐다. 또 다른 브랜드 고야드도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을 6% 인상했으며,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주요 브랜드도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1년에도 수차례씩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그 때마다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댔다.

가격을 올린다고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가공식품이나 생활 필수품이 고작 몇백원 올리는 것에는 지갑

을 닫지만, 명품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명품은 오늘이 가장 싸다’며 오픈런을 불사하고 매장으로 달려간다. 가격을 끊임 없이 올려도 사려는 소비자가 줄을 서는데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옆나라 중국은 자국 내 소비를 지향하는 ‘귀차오(國潮)’ 열풍이 불면서 명품에 대한 애정이 식은 분위기다. 때문에 오히려 명품 브랜드들이 매출 감소와 과잉 재고 해결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유독 한국에서만 잦은 인상을 하고 고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럴 때일수록 명품 소비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업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되길 기대해본다. /tree6834@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9	8	4	9	7	2	
9	7	2	5	6	8	6	1	
2	1	8	9	1	7	6	9	
8	2	6	7	9	1	9	8	7
8	7	7	6	1	9	8	2	9
9	9	8	7	6	2	1	7	8
7	8	1	9	7	8	2	9	6
7	9	9	8	2	6	1	7	8
6	8	2	1	9	7	9	8	

2	7	1	8	7	9	8	9	6
9	7	7	6	1	2	8	9	
6	8	2	1	9	7	9	8	
8	9	7	8	6	1	7	2	
8	2	9	8	7	9	6	1	
7	6	2	9	7	8	1	8	
9	1	7	9	2	8	6	1	
1	8	6	7	9	2	8	9	
7	9	8	1	6	8	9	7	

김상회의 四季 을사년 삼재

을사년이다. 그동안 삼재 기간을 보낸 신자진(申子辰) 세 띠는 삼재에서 벗어나며 을사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해묘미(亥卯未) 삼재가 들게 된다. 9년마다 삼 년씩 드는 삼재는 같은 삼재라도 복 삼재가 되기도 하고 악 삼재가 되기도 한다. 이는 순환되는 법칙의 체계에서의 조합이니 삼재는 삼가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 경계망동하고 들떠서 자만하거나 과욕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주눅 들지 말 것이다. 자신 또는 식구 중에 삼재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각각의 띠와 사주에 따라 드러나는 삼재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이 삼재를 맞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 하더라도 을사년에는 돼지띠가 좀 더 조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을사년의 지지인 사(巳)와 돼지띠인 해(亥)는 지지상 서로 부딪혀 깨진다는 충살(衝殺)이 되는지라 일단은 매사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은연자중(隱然自重)이 요구된다. 개인의 사주명조에 부정적 신살이 있다면 아무래도 삼재 시기에 사고가 나거나 중요한 계약이나 일에 장애가 예측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사주명조 자체가 반안살이나 월덕 천덕 등이 있다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잘 넘어가기도 한다. 또 기해생 돼지띠라면 은퇴 후 휴여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자영업으로의 전환시도 같은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신해생辛亥生이나 계해생癸亥生처럼 아직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의 승진에 답보가 있을 수도 있고 상사와의 반목이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주명조와의 대조 및 분석은 필수인데 일주와 대운의 기운도 같이 살펴야 더 자세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삼재라는 한 가지로 운을 단정하지는 말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